

생활밀착형 소통행정 강화... 행정 실효성 ↑

전주시 덕진구, 시민 중심 행정·맞춤형 복지행정 등 하반기 5대 추진 방향 제시

전주시 덕진구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강세권 덕진구청장은 18일 전주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 실현을 위한 하반기 구성 운영 방향으로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 행정 △춤춤하고 든든한 맞춤형 복지행정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안전 생활행정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상생 협력행정 등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덕진구는 행정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아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와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통합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미처리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과·동별 '협장행정'의 날'을 운영해 관리 사각지대와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의 이용 환경도 개선한다. 노후 주민센터의 불편 공간을 정비하고, 덕진구청은 관용차를 외부 주차공간으로 전면 재배치해 청사 1층 주차공간을 민원인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위기가구와 틈새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복지급여 지원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통합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폭염과 재난에 대비한 생활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취약지역 사전점검과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로

살수차 6대와 그늘막 280개소, 열음을 배치하는 도로 물 서비스 13개소 등을 운영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식품·공중위생 분야에서는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품안전업소 지정·점검을 확대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하수관거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림 재난대책본부 운영과 녹지대 유지관리, 하천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등을 통해 공원과 산림, 하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체납징수 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과 공공일자리사업, 여성취업 아카데미, 다문화여성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덕진구는 앞서 상반기에도 자생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 생활민원 및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중심 행정을 추진해 왔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무단 방지 차량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시민 불편 해소에 주력했다.

하반기에는 포드홀과 제조,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세권 덕진구청장은 "포드홀, 제조,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덕진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

전주시-전주대, 협력... AX 추진단 출범

전주시와 전주대학교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와 전주대학교는 18일 조지훈 전주시장과 류두현 전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공공·지역사회의 AI 기반 혁신을 위한 이날 협약에 따라, 먼저 전주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과 함께 소속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AI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시는 전주대 RISE사업단과 연계한 지역 전문기업 멘토링을 통해 민원·복지·교통·문화·관광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해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혁신과제를 발굴해 공무원이 직접 AI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협약식에 이어, 전주시 인공지능 전환(AX) 추진단의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AX추진단은 총 56명으로, 전주시 공무원 45명과 전주대학교 교수·AI분야 기업 전문가,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멘토단 11명이 참여하여, AI 활용 역량 강화 및 AI 활용 행정·민원서비스 개선 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을지연습 통해 지역 안보 확립 만전

국가비상사태 대비태세 확립 위해 21일까지 실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정부연습인 '2026 을지연습'이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전주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을지연습은 1968년 태국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해마다 매년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 및 전사전환절차의 연습과 더불어 전쟁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전시 비상대비계획 실효성 검증 및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한 통합상황조치와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제훈련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첫날 최초상황보고를 시작으로, 220여 명의 직원과 군·경·소방 등으로 구성된 전시종합상황실을 편성해 훈련 3~4일 동안 주야로 운영하며 실전과 같은 연습에 임한다.

또한 을지연습 기간 △전시직제 편성 및 전쟁기구 창설 훈련 △기관소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정부연습인 '2026 을지연습'이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전주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이동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과제 토의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대응 훈련 △민방공 훈련 등 실전과 같은 다양한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19일 전주혁신도시 농촌진흥청에서 12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국가중요시설시설 드론테러 대응 실제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안보상황에 따른 드론 및 무인항공기 등에 의한 방호목표시설 테러대응 훈련으로, 긴급복구 및 시설 방호와 적 격멸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여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

기 위해 민·관·군·경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어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방공 대피 훈련이 예정돼 있으며, 교통 통제 및 긴급차량 길 터주기 등의 훈련도 동시에 이뤄진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을지연습은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전과 같이 임해야 하는 훈련"이라며 "훈련 기간 중 모든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에 흐트러짐이 없이 훈련에 임하고,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 안보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싱크탱크 이골 제2대 전주시정연구원장 공개 모집

(재)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싱크탱크인 전주시정연구원을 이끌어갈 제2대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의 지속가능한 도시구현과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 연구기관이다.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연구원 운영과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임기 3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 △3급(상당)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상근 임원 또는 선임연구위원급 5년 이상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 상근 임원 또는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10년 이상 재직 경력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연구원 발전에 대한 소견서 등의 지원서류를 갖춰 오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주시정연구원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절차는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이사회 의결,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폭염 속 멈췄던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재개

혹서기 식중독 위험으로 인해 잠시 멈춰 섰던 전주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다시 산단 노동자들의 아침을 책임지게 됐다.

시는 18일 팔복예술공장 카페 씨나에서 폭염 및 혹서기 식중독 위험 등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일시 중단됐던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 재개에 따라 지난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중단 이전 참여 인원 규모 등을 반영해 기존 회당 200명에서 25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 이용 수요와 반응 등을



실제 사업 대상 인원을 최대 300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이용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을 원하는 노동자가 매주 월요일부터 네이버폼으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가뭄 장기화 대비 공공 분수대 가동 전면 중단

전주시가 최근 지속되는 가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범시민적인 절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 분수대 운영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시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관리·운영 중인 분수대 39곳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인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주도적인 용수 절약 대책 마련이 절실해짐에 따라, 지난 13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국가적 가뭄·폭염 대응 기조에 발맞

이 과정에서 폭염 지속 상황 속 대표적 폭염저감시설인 바다분수 가동 중단시 시민 불편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시는 가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분수대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